



취재 1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사무국 운영방향

- 취재 : 정재은 -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지난 2003년 12월 19일 '양돈자조금 설치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양돈자조금 거출여부 결정투표에서 참석한 대의원 166명중 156명(94%)이 자조금 거출에 찬성하였으며, 농가가 출하할 돼지 1마리당 거출금액은 두당 400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위촉하는 등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대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되어 경기에서 김동환, 진길부, 강원에서 성시명, 충북에서 이진석, 충남에서 김건태, 송건섭, 전북에서 강경철, 오군호, 경북에서 김성곤, 이병규, 경남에서 박창식, 서춘계, 제주에서 김성찬 대의원 등 14명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감사도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양단체가 1명씩 추천한 이병모, 윤상의 대의원이 감사로 위촉되었다.

추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당연직 위원에 안호근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장,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운철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 김호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전무 4명이 위촉되었다. 아울러 2월 19일 개최된 양돈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최영열 양돈협회장이 생산자단체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19명의 위원과 2명의 감사로 총 21명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난 1월 27일 개최된 제1차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04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안), 사무국 설치 기본방향(안), 거출금 조성방안(안), 양돈자조금 회계규정(안) 등에 관해 논의를 하였고,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제2차 양돈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되면 올해 3월부터 실시하는 자조금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21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2인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양돈자조금 운영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현재 김건태 위원이 관리위원회 임시위원장이며, 차후에 개최되는 제2차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자조금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김건태 임시위원장과 함께 김동환, 진길부, 김운철 위원, 이병모 감사 등 4명이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자조금사업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역할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양돈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양돈자조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심의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안건 ▲그 밖의 양돈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지난 1월 27일 aT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지난 2월 13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임시사무국에서 개최된 소위원회

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 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축산단체의 장, 농림부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업계 또는 기관이 위촉하는 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4명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의사록은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3월부터 총 100억원 조성, 농가들의 관심과 협조 필요

관리위원회에서는 양돈자조금을 3월 1일부터 거출하기로 합의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두달 400원 거출로 농가거출금 50억원, 정부지원 50억원 등 총100억원의 자금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차후에 개최되는 제2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거출금 수납기관을 확정해 징수 위탁을 하고 3월부터 거출금을 징수하여 거출된 금액을 매월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는 '04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안), 양돈자조금 조성규정(안), 양돈자조금 회계규정(안) 등을 보완 확정하여 3월부터는 자조금법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조금사업의 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 양돈자조금관리사무국 ●●●

지난 1월 27일 개최된 관리위원회에서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했

으며, 인력 운용은 양돈협회와 농협 자조금 담당 직원을 파견하고 자조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사무국장과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임시사무국이 지난 2월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1101호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 사무실 내에 임시 개설되었다. 양돈협회 파견 양돈자조금 담당자는 박순철, 손재현 대리이며, 농협 파견 담당자는 백삼령 과장이다.

양돈자조금관리사무국 구성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도록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에는 총무팀, 관리팀 부서를 둔다. 아울러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양돈자조금관리사무국 직원의 직무

사무국 부서별 직무는 ▲총무팀 : 세무·회계·서무업무, 거출금 환급 및 민원 처리 사항 등 ▲관리팀 : 거출금 수납 및 관리, 사업집행,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업무이다.

사무국 직원은 다음의 ▲사업추진을 위한



▲ 지난 2월 4일 aT센터 1101호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 사무실 내에 임시 개설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임시사무국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지원금과 운영관리비의 집행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세무업무,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표, 원장정리,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용 장비, 비품, 기자재 등 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사무국은 저비용 고효율 추진체제로 구축

지난 2월 4일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 임시 개설된 사무국에서 양돈협회 파견 양돈자조금 담당자 박순철, 손재현 대리, 농협 파견 담당자 백삼령 과장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차후에 개최되는 제2차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사무국 설치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며, 양돈협회와 농협 자조금 담당 파견 직원과 함께 '04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안)의 확정 등 자조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사무국장 과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용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최소인원 구성으로 저비용 고효율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양돈**